

조국당 전북도당, 전북 단체장 작심비판

“24년말 전주시 채무 6천억 넘어
우범기 시장, 빚폭탄 초래”
난타 시의회·군의회 비위 잇단 비판
“도지사 통합 불발 시 사퇴” 요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최근 들어 연
일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 그 배경
에 귀추가 쏠린다.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창군의회,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
의회 비위문제 등을 중점 나타냈다.

먼저 조국당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민선8기 4년차가 시작되는 날
이다. 지난 6월 26일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위기는 없다”, “부채도 자산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
실은 다르다”며 “지금 전주시는 예산폭
탄이 아니라 빚폭탄을 맞고 있다”고 주
장했다.

또 “전주시의 채무는 2020년 1,300억
원 수준에서 2024년 말 기준 6,000억 원
을 넘어섰다. 특히 우 시장 취임 이후 채
무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고 전해한
뒤 “올해 채무비율은 21.4%로 재정주의
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바짝 다가섰
고 연간 지방채 이자 상환액만 약 195

억 원, 하루 5,400만 원에 이른다”고 덧
붙였다.

특히 “전주시의회에서는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 모라토리엄(지급유예) 가능성
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우 시장
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등 불가피한 요인을 언급하지만 채무증
가 자체는 명백한 행정 책임으로 중요
한 것은 부채가 늘어난 만큼 전주시의
역량이 커졌는가, 시민의 삶이 나아졌는

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여파는 곳곳에서 드러나
고 있다.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관광거
점 도시사업 등 국비가 확보된 사업마
저 시의 대응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거
나 무산 위기에 놓였다. 예산폭탄을 가
져오겠다던 공약은 예산 부족과 빚 의
존이라는 무기력한 현실로 변질됐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22일에

도 논평을 통해 “전주 완주통합을 밀어
붙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만약 불발
시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내년 6월 지
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하기
도 했다.

이에 앞서 도당은 물의를 빚고 있는
고창군의회와 지난 연수시 말썽을 빚어
빈축을 사고 있는 전주시의회 등 지방
의원 비리백태를 꼬집은 바 있다.

/장정철 기자



도는 23일 도청에서 교육계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공감대 확산 전략을 논의했다. <사진=전북도>

전북, 10대 핵심아젠다 국정과제 반영 성과 가시화

피지컬AI 등 국정과제화 주력
산업 신규사업 예산 1,668억 확보
기능성식품 특구 지정 시장 진임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반기 새 정부 국
정철학에 맞춰 재생에너지, 피지컬AI,
K-방산 육성 등 10대 핵심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반영 활동에 주
력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산업분야 공모사
업에 1,668억원(20건)의 사업비를 확보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정부추경에 미래 모빌리티 제
조공정 피지컬AI 개발 실증을 위한 ‘피
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국비
229억원을 확보한 전북도는 향후 협업
지능 SW플랫폼 개발,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 전주 완주 중심의 피지컬AI 산
업 생태계를 그려갈 기반을 마련했다
는 평가다.

또 친환경 자동차 탄소 융복합 분야
의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지정되며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
대 및 공유공장 안전성 실증을 통해 건
강기능식품 시장진입과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신설(4월)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화연구센터
(HUB) 개소(5월)로 방위산업 인프라의
토대도 다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첨단전략산
업의 테스트베드 중점 아젠다의 국정
과제 반영과 함께 수소 및 이차전지 분
야 예타 대응, 4,600억원 규모의 산업분

야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전북도만
의 강점분야를 토대로 분야별 추진전
략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새정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이 높고 초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새만
금과 송전선로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RE100 산단
조성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전북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새만금은 신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새만금과 연
계해 정부의 행정 절차에 적기 대응하
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학교에서 싹트는 올림픽 유치의 꿈 전북, 교육계와 전주올림픽 협력

올림픽 유치 교육계 협력 간담
14개 시군 교장단 등 23명 참여
학생 참여·지역특화 활동 논의
IOC에 편지·미니올림픽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에서 전
주 하계올림픽 유치,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과
연계한 유치 공감대 확산 전략을 논의
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계의 시각에서 올
림픽 유치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
연스레 올림픽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
록 학교 교육과정을 활용한 협력 방안
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주고대 송지환 교수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교장단 대표 등
교육계 인사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
현 가능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

안하며 유치 분위기 조성에 대한 교육
계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학생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반영
한 맞춤형 활동을 통해 올림픽의 가치
와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 초
점을 맞췄다.

송지환 전주교육대 체육교육과 교수
는 “IOC 위원에게 보내는 영문 편지쓰
기 대회,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내 미니
올림픽 등은 올림픽 정신이 아이들 삶
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스포츠 행사
에서 실제 활용된 해외 사례도 함께 소
개하며 실효성을 배가했다.

전북특자도는 이날 제안된 다양한 의
견을 향후 유치 홍보 정책에 적극 반영
하고 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식 전북도 2036하계올림픽유치
단장은 “전주올림픽은 우리 아이들에
게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꿈을 심어줄
기회”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농업민생 4법 추진 ‘속도’

尹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법·농안법 8월 4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농업민생 4법인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을 국회에서 처리한데 이어 나머지 ‘양
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오는 8월 4일 국
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최고위
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
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이 처리하고, 양곡법과 농안
법은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민생 4법은 이원택 의원을 비롯
한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
됐었다.

이와함께 황 대변인은 ‘강선우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대한민국
은 4대 위기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고 국
가 정상화를 위해 내각 구성이 신속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서율=김영목기자



말 산업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
부강한 농촌 건설의 꿈을 국민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우수한 명마 배출의 요람

KRA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구매상한선 준수는 건전한 여가생활의 시작입니다.

전북자치도, 폭염 취약지역 현장 실태 점검

노홍석 행정부지사
익산 건설현장 등 방문
“도민 생명·건강 최우선”

전북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23일 익산시 일대 무더위쉼터와 쿨링포그 시설, 이동노동자쉼터,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지역 4곳을 차례로 방문해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노인, 야외 노동자, 건설현장 근로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됐다.

먼저 익산시 송학동에 위치한 물망초경로당을 방문해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

인 시설의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이어 모현공원 내 쿨링포그 시설을 찾아 운영 실태와 시민 이용 편의성을 점검했다.

익산 모현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생수와 응급약품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청 건설현장을 찾아 고온 시간대 작업 중지 여부, 휴식시간 보장, 폭염 대응 수칙 이행 상황 등을 챙겼다.

노홍석 부지사는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부서와 시·군이 긴밀히 협



전북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전북자치도>

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의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 대표 발의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이용
산지 전체로 지급대상 확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선하여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료를 통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임금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영인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행법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업(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제한

하고 있어 실제 임업을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은 다수의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임업에 종사하며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인에게도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임업직불금의 공익적 취지를 살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삭제하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기준이 제한된 특정 기간 동안에만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국한돼 있어 실제 임업에 종사하더라도 임업직불금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제도의 틈새들을 보완해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충청남도, 해양폐기물 수거 공동대응

집중호우 시기 협업 체계 구축
해양환경복구선박안전 확보

전북도와 충청남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금강 하구 및 인근 해역에 유입된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해양폐기물 공동대응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집중호우 시기의 광역 협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선박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7월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금강 하구와 인근 해역에는 대량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돼 선박 통항을 방해하고, 해양오염 및 사고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71톤 규모의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를 활용해 해양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충남도는 131톤



규모의 ‘늘푸른충남호’를 투입해 수거된 폐기물을 육상 집하장으로 운반했다.

“전북901호”는 굴삭기와 해저경운장비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정화선이며, ‘늘푸른충남호’는 크레인과 스레기 운반 트럭을 갖춘 운반 전용선으로, 양도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신속하고 안전한 해양폐기물 처리를 가능하

게 했다.

김병하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공동 대응 작업을 통해 금강 하구 및 인근 해양환경 복구뿐 아니라 선박 안전 확보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와 충남도가 긴밀하게 협력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수봉 의원, 전북 치유농업
농업역할 확대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은 23일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전북 치유농업과 농업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고 전북도 차원의 정책 개선과 확대,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전북자치도 및 시군 관계자, 치유농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승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치유농업은 농업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토론회가 치유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농업의 역할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道, ‘K-POP 아카데미’ 50개국·558명 지원

8월 1~14일까지 운영

전북도가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오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운영한다.

글로벌 K-컬처 허브로 도약하는 사실상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이 사업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558명이 지원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출신 청소년 20명이 최종 참가할 예정이다.

전북 K-POP 아카데미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부안 등 도내 문화시설에서 열린다. 참여지는 한국,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 10개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다.

이번 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참가자 모집은 지난 상반기 동안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인도(163명), 러시아(91명), 브라질(45명), 이집트(24명), 인도네시아(22명)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자가 몰렸다. 선발 과정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영상 오디션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실력과 참여 의지를 평가해 최종 20명을 선발했고, 비자 문제 등으로 불참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 인원도 20명 확보해 둔 상태다.

참가자들은 체행 과정에서 직접 제작한 브이로그, 댄스 영상, 공연 클립 등을 개인 SNS 및 글로벌 플랫폼에 업로드하며, 전북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게 된다. 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원은 정식 발매가 예정돼 있으며, 카바곡은 올림픽 유치 메시지를 담은 형태로 리믹스된다. 이밖에도 부안 해변 축제 무대 공연, 전통시장 투어, 한옥마을 체험 등 지역 맞춤형 K-컬처 콘텐츠가 프로그램 전반에 들어 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순창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총 130명 인력 현장 투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순창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총 130명의 지원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이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마련한 후속 조치로,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8일 민생지원팀을 순창지역에 긴급 파견해 인

시대피소를 방문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순창군과 협력해 파악한 농가 침수, 주택 피해 등 피해 실태를 토대로 주민들의 요청에 맞춘 복구지원 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이에 대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도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민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요구 점거농성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안호영 한노위 원장의 지역구 사무실과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이 들어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민주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대전시당, 충북도당, 한노위 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 지역구사무실, 광주광역시도당 등 12곳의 당사 안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계의 숙원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흐르는 조항이 많다”며 즉각 통과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된 뒤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시도당 점거 이유를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 예방 실천수칙 6가지

1첫째
올바른 손씻기
30초

2둘째
끓인물
마시기

3셋째
익혀
먹기

4네째
깨끗이 씻어
벗겨먹기

5다섯째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6여섯째
설사·구토시
조리하지 않기

전북, 1100억 규모 벤처펀드 운용사 추가 공모

‘혁신성공’ 운용사 4곳 추가 모집 스케일업 등 4개 분야 125억 출자 연내 1100억 신규 펀드 결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2025년 제3차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공모를 통해 운용사 4곳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창업·벤처(창업초기), △스케일업(오픈이노베이션) △세컨더리(일반), △세컨더리(지역AC)의 4개 분야로 도에서 125억원(익산시 10억 포

함)을 출자약정*해 연내 신규펀드 결성을 목표로 진행한다.

* 출자 규모(125억원) : △창업·벤처(창업초기) 30억원, △스케일업(오픈이노베이션) 50억원 △세컨더리(일반) 30억원 △세컨더리(지역AC) 15억원

공모 접수는 2025년 8월 7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약대상 운용사를 선정하고, 12월까지 4개 펀드 1,1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9개 분야, 2,690

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을 목표로 출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미 1·2차 공모를 통해 5개 분야, 1,915억 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진행 중이다. 이는 당초 계획(1,590억 원)보다 325억 원 증액된 성과다.

이번 3차 공모는 1차, 2차 출자사업에서 미선정되거나 출자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재공고하는 것이며, 공공 정책펀드에 선정된 운용사와 연계하여 펀드 결성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북에서 운용하는 벤처펀드는

총 22개 펀드, 8,183억원으로 올해 목표한 9개 펀드 2,690억원을 신규 결성한다면 전북에서 운용하는 벤처펀드는 1조 원 규모를 넘기게 된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에서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하게 된다면 도에서 출자한 1,000억원의 200%인 2,000억원 이상이 안정적인 투자 재원으로 도내 창업기업에 공급될 것”이라며,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소재철 회장,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동참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인구문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사회 각계가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소재철 회장은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

에 참여했다.

소재철 회장은 다음 주자로 대한전민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임근홍 회장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유재영 회장을 지목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앞으로도 인구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재철 회장은 “인구문제는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이동노동자 현장 간담회…권익보호 강화

배달대행종사자 등 참여 현실 애로 전달·개선 방안 모색 상담 확충·지원 사업 확대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23일 전주 소셜 캠퍼스온에서 이동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도와 민간위탁기관인 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도의원,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시군 유관부서 담당자, 이동노동자 15명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 다양한 이동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휴식공간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

교통안전 교육 및 보험 지원 강화 △폭염·한파 대응 안전용품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상담 확대 등이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일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며 연계형 쉼터 확충과 계절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충남도의 ‘편의점 연계형 쉼터’, 광주시의 ‘교통안전교육 및 쿠폰

제공’ 등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효과적인 이동노동자 지원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 소재영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동노동자들은 우리 경제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은행, 道에 2500만원 상당 재난·재해 긴급구호키트 지원

비상식량·마음힐링키트 구성 총 670명분 전달식 진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23일 본점 1층 로비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무처장 김한규)와 함께 2500만원 상당의 재난·재해 긴급구호키트 나눔 사업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폭우와 태풍, 산불 등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이재민의 정상적 생활복귀 및 정신적 충격회복을 도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긴급구호키트는 즉석밥, 장조림캔, 참

치캔, 미역국, 즉석카레·짜장 등 9종으로 구성된 비상식량세트 370박스와 아로마오일, 편백주머니, 찜질팩, 비타민 등 6종으로 구성된 마음힐링키트 300박스 등 두 종류로 나눠 제작했다.

총 670명분의 긴급구호물품은 도내 재난·재해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지원이 시급한 이재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은 “기후변화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올해에도 긴급구호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사회 재난상황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



로 대응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복구 총력



1257개소 점검 2차 사고 예방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1200여 건이 넘는 전기점검을 수행하는 등, 긴급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1257개소의 긴급 전기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이중 취약계층 주거지(1117개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시대피소(121개소)와 아파트 등 대규모 시설(16개소), 태양광 발전소(3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부터 긴급 복구활동을 시작했다.

폭우 피해가 큰 경남·전남·충남 지역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침수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천사고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배선·누전차단기·콘센트 등 주요 설비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2일부터는 공사 임원진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남화영 사장은 22일 경남 산청군에 이어, 23일 전남 함평군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배계섭 안전이사는 22일 충남 예산군을 방문했으며, 김성주 기술이사는 태양광 설비 확인을 위해 23일 전남 화순으로 향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이번 전기안전 점검과 긴급복구는 폭우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하루빨리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K-농기계·농업기술 우즈베키스탄 벼 생산 ‘밀거름’ 된다

농진청, 우즈베키스탄서 한국 농기계 기증식 개최

농촌진흥청은 23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벼 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KOPIA 우즈베키스탄 다수성 벼 종자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기증식에는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농업부장관, 농업지식혁신장관 등 현지 정부 인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한 농기계는 벼농사 전 주기(기초 작업, 이앙, 재배, 수확)에 투입할 수 있는 최신 한국산 농기계들로, 총 23만 달러 규모다.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향후 한국 농기계 전문가를 현지로 초빙, 농기계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기계의 우수성을 현지에 알려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현지 벼 생산성 향상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0억 원 규모의 ‘다수성 벼 종자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KOPIA 우즈베키스탄 사업 성과를 크게 인정해 벼 종

자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KOPIA 사업 성과를 직접 보고받고, ‘벼 생산자 지원을 위한 조치’(대통령령 No. PQ-290)를 발표했다. 아울러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와 협력해 ‘벼 우량종자 증식센터(2025.9. 공식 출범)’를 설립하도록 공식 지시했다. 이어 올해 7월 2일에는 아리포프 총리 명의의 내각명령 제410호를 공포, KOPIA 사업 성과가 국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와 함께 우수 벼 종자 생산 확대, 농기계 도입, 농업 기술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 공식 출범하는 벼 우량종자 증식센터를 통해 전국 단위의 벼 종자 보급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유은하 과장은 “KOPIA 우즈베키스탄 사업 성과가 현지 정부 정책에 공식 반영된 것은 우리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및 벼 연구소 등과 협업체를 구성해 KOPIA 우즈베키스탄 사업 성과가 현지 정부 차원의 시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농업인 이동법률상담 운영

23일 김제 광활농협서 진행 접근취약지 맞춤형 법률서비스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국장 김삼형)은 전북 김제시 소재 광활농협(조합장 임영용)과 함께 23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5번째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검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김삼형 국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북전주농협은 23,24일 양일간 본격 복숭아 철을 맞아 하나로마트에서 덕진 원동 일대 재배 고품질 복숭아 대축제를 연다.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하나로마트 복숭아 대축제’ 진행

전주 덕진 원동 복숭아 홍보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에서는 23일~24일 양일간 본격적인 복숭아 철을 맞아 복숭아 대축제를 실시한다.

이번 축제는 전주시 덕진구 원동 일대에서 재배된 고품질 복숭아를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농가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실시한다.

원동 복숭아는 일조량이 풍부한 전주의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워 매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이다.

/김은지 기자

특히 이번 축제에서 판매되는 복숭아는 북전주농협 APC 복숭아 공선회에서 엄선하여 선별된 당일 상품으로 신선도와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전주농협 이우광 조합장은 “전주 원동 복숭아는 맛과 향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손꼽히는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판로 확보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 보내도 교권 침해 아니다?

전북교총 “시대착오적 판단
입장 명확히 밝혀야”

전북의 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은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에게 SNS로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했는데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메시지는 자동 삭제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폭탄 메시지’였다.

현재 해당 학생은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같은 교보위의 결정으로 피해 여교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은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북타임스>

학생과 한 공간에서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교총은 “해당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보위는 이 같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고,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 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회피성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오판이 아닌 교권 인식 부재이자 교권 보호 제도의 배신”이라며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보위 결정을 재

검토하고 위원회 구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존재이기에 교사의 인격과 권위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전북교총은 피해 교사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번 사건이 교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보위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교보위의 결정에 대한 공식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조속히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교사노동조합도 같은 내용의 사안을 두고 성명서를 내고 “해당 교육지원청 교보위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학생선수 33명 국가대표 꿈 키운다

우수학생선수 해외 교육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선수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경기력 향상,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박 9일 간의 일정으로 ‘우수학생선수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해외 교육훈련에는 학생선수 33명이 참여하며,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영국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한다.

학생들은 각국의 올림픽 관련 기관과 선진 체육시설을 견학하고, 프

랑스 체육 영재 육성 기관에서의 훈련 체험, 올림픽 개최지 탐방 등을 통해 국제적인 스포츠 환경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주시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활동도 포함된다.

참가자들은 유럽 각국의 올림픽 관련 도시와 기관을 방문해 전주가 준비 중인 올림픽 유치 활동과 스포츠 인프라에 대해 소개하고, 전주의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RICE, ‘특수목적 기계부품 고도화’ 정부 과제 선정

지자체-대학-기업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 협력

전북대학교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센터장 정용재 교수)가 전북 지역 중소·중견기업들과 공동 기획한 ‘특수목적용 기계부품 산업의 고도화’ 과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산학연 Collabo R&D 컨소시엄형 과제에 선정됐다.

이번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기반으로 기획됐으며,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지능화 솔루션을 공동 기획·추진했다는 점에서 정책·현장 연계형 R&D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



가다.

‘산학연 Collabo R&D’는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력 산업인 기계부품 분야를 디

지털 전환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첨단 R&D를 통해 새로운 제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에는 전북지역 대표 중소·중견기업인 트라웍스㈜, ㈜어포스텍, ㈜오디텍, 두이엔지㈜가 공동 참여한다.

연구개발은 전북대학교와 국립군산대학교의 연구진이 맡는다.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될 핵심 기술은 △산업 맞춤형 3D 영상인식 기술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객체 검출 △생성형 AI 기반 희소데이터 증강 △경량화를 위한 양자화 및 지식증류 기법 등이며, 최종적으로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지능화 기술이 기업 현장에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전북RICE지능화혁신연구센터 이상준 부센터장은 “이번 과제 선정은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로, 지역 산업과 교육, 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협력 모델”이라며 “참여 기업과 연구자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지능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도내 401개교(98%) 늘봄학교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으로 여름방학 중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2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방학 중 도내 409개 초등학교 가운데 401개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며, 초등 1·2학년 1만7,008명이 참여한다. 이는 전체 초등 1~2학년 2만962명의 81.1%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남원·김제·임실·순창·부안 등에서 100% 학교에서 운영하며, 군산·정읍·전주 등 대도시 지역에서도 높

은 참여가 이뤄졌다.

늘봄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8개교는 학교 공사나 지역 특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전주서천초, 전라초, 팔복초, 정읍초는 방학 중 대규모 시설 공사로 인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했다.

늘봄학교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학교밖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현장 교원들과 정책 간담회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2일 김제시 포랑 세미나룸에서 초등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수석교사, 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전북교육청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학력신장 등 초등교육의 핵심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운영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참석 교원들은 과목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상 어려움을 전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재검점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지역 상생협력 협의체 출범

지역상생협력 협의체 1회차
‘지식으로 지역 깨우다’ 슬로건

국립군산대학교는 RISE사업단과 대외협력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군산리츠프라자호텔에서 ‘KSNU-RISE UP! 지역상생협력 협의체 1회차’를 개최했

다.

이번 행사는 ‘지식으로 지역을 깨우다’를 슬로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에너지신산업(첨단소재·청정에너지 등) 관련 기업 CEO 및 임원 약 70여 명을 초청해 에너지산업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

기 위한 네트워크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에너지산업육성단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산업육성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조찬 간담회에서는 지역 에너지 기업 간 협력 방안, 기술 및 정책 연계 방안, 지·산·학·연 간 연계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활

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KSNU-RISE UP! 지역상생협력 협의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소재·청정에너지, 해양수산, 모빌리티 등 특화 산업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써 큰 의미를 갖는다.

/최성민 기자

열대야 잘 나는 방법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스마트 폰 자제 하기 ◆격렬한 운동 하지 않기 ♣야식 자제하기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금물



군산시,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중간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사업'의 하나로 주민등록인구 외에도 실질적으로 군산에 체류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결과 발표에서는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차이 △이동인구 패턴 △외국인 체류 변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복합적 원인이 소개되었다. 발표자와 참석자들은 결과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눴으며, 다음 완료보고회에서 군산시의 실질적인 인구 기반과 정책 수요층을 정밀하게 파악한 최종 결과를 통해 차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바탕으로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2026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문제 해결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비 분석과제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신태인역 광장에 전광판 설치...지역 알리미 역할

정읍시가 신태인역 광장에 전광판을 설치해 관광과 시정 정보를 알리는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관광자원과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신태인역 광장 내 전광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마침내 완공됐다. 전광판은 높이 6미터의 기둥 위에 세워진 단면형 풀컬러 LED 형태로, 화면 크기는 가로 5.4미터, 세로 3미터에 달한다. 야간 시인성은 물론 영상과 문자 송출 기능까지 갖춰 정보 전달 효과를 높였다. 시는 이 전광판을 통해 정읍의 다양한 관광 명소와 축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방문객의 관심과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평소보다 높은 대조기로 해안가 고립자, 저지대 침수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을 때를 가리키는데 이번 대조기에는 최고 7m 22cm까지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기에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높고 바닷가 인근에 고립되는 사고와 방파제를 넘는 높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군산시 내항 해방동 일대가 자주 침수돼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해안가 저지대와 고립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너울성 파도에 대비해 방파제 출입통제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일바지 입고 익산 고구마 축제 가자”

익산 고구마(쑈) 축제 개최 청소년손그림 캐릭터 공모전

익산의 대표 농산물 고구마와 고구마쑈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다시 태어난다. 익산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2025 익산 고구마(쑈) 축제'를 삼기농협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일원에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 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이 주관해 열리며, 고구마와 고구마쑈를 주제로 한 체험형 행사 형태로 마련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보석 고구마 캐기, 돌화(확독) 고구마쑈 김치 담그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바지'를 착용하고 개막행사에 참여하면 고구마쑈를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는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축제 개막에 앞서 사전 프로그램으로 '익산 고구마(쑈)를 부탁해' 캐릭터 손그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의 상상력으로 축제 홍보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종이 또는 태블릿 등에 그린 캐릭터를 오는 8월 7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newdeet@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작은 전문가 심사와 대중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



며, 수상자에게는 상품과 상금을 비롯해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상이 수여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관광재단 또는 '다다익산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시장 “폭염도 재해··농업인 지키는 행정 펼쳐야”

농업 현장 중심 신속 대응

정읍시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적극행정에 나섰다. 최근 정읍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일수가 이어지며, 폭염특보가 반복적으로 발효되고 있다. 장시간 야외 노동이 불가피한 농업인들의 작업 여건이 악화되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작업시간 조정, 그늘막 설치, 쿨도시·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생산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시장은 지난 22일, 복숭아·고추·오이 재배 농가를 직접 찾아 폭염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재난”이라며 “행정



이학수 시장은 지난 22일 농가를 직접 찾아 폭염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정읍시>

이 앞장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 속 반복되는 포장 작업은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며 “수박, 복숭아, 오이 등 여름철 주요 작물에 대해 규격을 통일하고 포장 간소화에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박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히 유통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농가

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만족도까지 고려한 실용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폭염과 가뭄, 폭우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특보 단계별 긴급 문자 발송, 공직자의 현장 방문, 탄력적인 안전조치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신속하고 유연한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강임준 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해 전력투구

23일 기재부 방문

개야도 국가어항 조성 등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의 23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군산시 현안 사업의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재해 예방,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시급성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개야도 국가어항 조성, △군산시 나운1·2구역 노후 상수관 망 정비사업, △조촌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 정비사업, △미륵·개야도지구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군산시 승화원 화장로 선진형 개보수사업, △군산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에는 국가 어항으로 승격된 이후 개발이 지연돼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기후예산과를 방문한 강 시장은 도시 유희공간을 활용해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군산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사업을 건의하며, 도심 열섬 완화와 녹색 복지 확대라는 공

익적 효과를 강조했다. 안전예산과에는 도심 침수 피해 해소와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조촌지구 풍수해생물권 종합 정비사업과 미륵·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강임준 시장은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 주요 사업이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AI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익산시가 지역 주도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익산시는 23일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AI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국가디지털 전환 전략'에 발맞춰, 지역

단위의 인공지능 활용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소중환 첫걸음이다. 간담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통신기업 관계자, 대학교수·정책 자문 전문가, 문화콘텐츠 분야 대표, 청년 창업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익산시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더불어, 식품·주유파·문화관광·농업 등 지역 특화 산업과 AI 기술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행정 효율화와 산업 고도화, 전문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익산시의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가 다수 제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언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 특성과 자원을 연계한 AI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장, 반찬 나눔행사 현장 방문해 격려

“사각지대없는 정읍 만들겠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소외계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반찬 나눔 행사를 직접 찾아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23일 이학수 시장은 장명동 '영양식 밑반찬 나눔행사' 새마을회관을 방문해 새마을지회장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나눔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정읍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최금순)가 정읍시의 후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양식

밑반찬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23개 읍면동 부녀회원들이 지역에서 난 신선한 재료로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학수 시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북지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황해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하천이 도시를 살린다. 정읍천, 계절형 관광자원으로’를 통해 정읍천의 뚜렷한 정체성과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계절별 테마정원 조성과 생활형 콘텐츠 개발 등을 강조했다. 정상철 의원은 ‘안전한 농기계 보관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업기계 공공 수리 및 보관시설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이상길 의원은 ‘지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을 위한 제안’을 통해 수요자 중심과 민간 참여형 구조의 비즈니스 마인

드를 도입한 전략적 관광정책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안건심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수재해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고경운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안’, 서항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가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업무 결산·점검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시장 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을 시작으로 2개국(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공유받았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를 이어갔다. 먼저, 김미선 의원은 “송학동 대규모 아파트 인근 골목길의 교통 혼잡으로 접촉사고가 빈번하다”며, “주의 표지판·반사경 추가 설치 등으로 주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김순덕 의원은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묘지를 옮기고 사비로 토지를 매입한 시민들이 공원 배지화로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상 방안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규 의원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인 피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자전거 안전교육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박종대 의원은 “신규 아파트 준공 중가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용 의원은 “부송 4지구 개발 완료 후에도 공동초 진입로 등 연결이 미흡해 통학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영미 의원은 “농촌 거점시설 운영에 향후 예산 부담이 예상된다”며, “도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조남석 의원은 “아직도 농촌지역 등 비포장 도로가 많다”며, “생활 밀접 분야인 SOC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소길영 위원장은 “이번 익산 맥도날드 고구마버거 출시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적으로 익산 탐마루 고구마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구마버거 사례처럼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익산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더 넓어진 익산 ‘더봄’, 아이들 꿈 키운다

초등에서 중등까지 참여대상 확대

익산시가 공공형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미래 역량과 교육 기회를 함께 키운다.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공공형 방과후학습관 ‘더봄’의 2기 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기 ‘더봄’은 △천연재료 화장품 만들기 △힐링원예 △미술치료 △코딩 △드론축구 △웹툰 등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방과후 수업을 운영했다. 지난 4월부터 8주 과정 동안 초등학생 668명이 참여했으며, 약 93%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기 과정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학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수업의 내실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기존의 뷰티테시피와 미술치료, 코딩, 드론, 웹툰 수업에 더해 다양한 수업을 추가 개설해 교육과정을 확장했다. 시는 방과후학습관 ‘더봄’을 통해 특별한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지역 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봄’ 2기 교육과정은 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 소비쿠폰 신청·지급 본격 개시

인구감소지역 혜택 최대45만원 선불카드·포인트 충전 등 다양 ‘찾아가는 신청’ 운영 28일부터

남원시는 정부의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됨에 시민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창구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고물가 대응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전국 단위 지원 정책으로, 남원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본 지급액에 5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일반시민 20만원, 차상위 한부모계층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을 받게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을 원하는 시민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위임자신분증 포함), 위임장, 가족관계



남원시는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창구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남원시>

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남원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1일부터 26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또한 시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

에 놓인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최대한 신청을 도울 방침이다.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소비 진작을 함께 도모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통합 찬·반 바로알리기’ 간담회 열어

이장연합새마을부녀연합 초청 “주민에 정확한 사실 알려야”

완주군이 23일 완주군 이장연합회와 완주군 새마을부녀연합회를 초청해 ‘완주·전주 통합 찬·반 바로알리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 논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홍보되고 있는 105개 상생발전 방안의 비현실성과 비합리성, 통합 찬·반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실자료를 공유하며, 지역리더들이 통합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통합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주민의 뜻을 반영한 행정 운영과 소통 중심의 정책 결정에



완주군은 23일 완주군 이장연합회와 새마을부녀연합회를 초청해 통합 찬·반 바로알리기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완주군>

대해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 여러분께 통합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며 “완주군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군민 통합을 위한 공론의 장을 계속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곧바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여론 조사를 통해 반대 여론이 다수일 경우 통합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시작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본격화 올해부터 심사 체계도 강화

순창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8월 11일까지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 공모는 순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순창군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은 순창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171건, 약 233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34건(61억 원 규모)이 최종 선정되어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심사체계를 강화해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업

을 선별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작은 아이디어라도 적극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번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8월부터는 사업 분류 및 실무 검토를 거쳐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며, 이후 최종 선정된 사업은 11월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12월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상수도 블록화로 수도물 관리 자동화 ‘시동’

정수장관로 통합 감시체계 전환 실시간 분석 재무건전성 제고

남원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사업으로 상수도 체계적 관리,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및 지방공기업 재무건전 개선을 위해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시 전역에 수도관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상수도 고립 여부 확인을 위해 아간시

간대에 작업을 실시했다.

상수도 고립 확인작업은 해당 구역이 수도물 공급중단에 따른 수압분석 등을 통해 고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상수도 블록시스템’은 급수구역을 세분화하고 구역화해 수도물 사용량, 수압, 누수량 분석 등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자동화 감시시스템을 말한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설치되는 설비로는 블록단위 별로 유량계, 수압계, 전기·통신 단자함,

원격 감시설비 등이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29년부터는 자동화 설비를 완비해 기 운영중인 정수장과 더불어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도 자동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남원시 상수도 시설 전체 설비를 자동화 감시 시스템으로 본격 관리하게 된다.

남원시는 상수관로의 블록시스템, 노후관로 교체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제고, 감시 관리체계 효율성 증대 및 지방공기업 재무건전 개선이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은 23일 GS25와 ‘아동친화편의점’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GS25와 ‘아동친화편의점’ 만든다

군 ‘아동친화상점’ 사업 일환 눈높이 진열대·휴게공간 마련

완주군이 23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GS25와 ‘아동친화편의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이 일상적으로 자주 찾는 편의점을 보다 안전하고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 아동읍부드 퍼스사무소가 운영 중인 ‘아동친화상점’ 사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아동 및 양육자의 이용이 많은 카페·음식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상점 아이러브존’을 운영해왔으며, 올해 초 관내 26곳을 지정한 바 있다.

GS25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에 공감하며 참여를 결정했고, 향후 아동친화편의점으로 선정되는 매장에는 ▲전용 현판 설치 ▲아동 눈높이에 맞춘 진열대 재구성 ▲아동 전용 휴게공간 마련 ▲아동 주간 할인 혜택 제공 등의 기준을 적용, 운영할 계획이다.

배용현 GS25 전북지역팀장은 “일상 속 생활 인프라인 GS25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아동친화편의점 사업 추진을 통해 아동이 지역사회 어디를 가든 대받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력 강화 논의

농번기 인력난 해소 모색 필리핀 현지 협약 적극 추진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 은 22일 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관련 부서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완주군의 만성적인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

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일정(8월 4일~29일)과 절차 ▲필리핀 협력 도시와의 MOU 체결을 위한 방문 계획 ▲9월 4째 주 예정된 필리핀 탈로시 방문 ▲11월 중 계획된 필리핀 미나시장 방문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규성 위원장은 “필리핀 탈로시와 미나시 등 협력 도시와의 신뢰 있는 교류를 통해 우수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도 함께 고려하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20회 장류축제 향토음식부스 운영자 모집

지역 ‘숨은 원석’ 맛집 찾아 내달 4일까지 접수

순창군이 ‘제20회 순창장류축제’ 향토음식 부스 운영자를 오는 8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스 운영 신청 자격은 순창군 내 단체(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식당에 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나 단체는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장류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8월 4일까지 이메일 또는 환경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판매 가격을 1만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

며, 장류를 활용한 메뉴를 중심으로 부스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장류축제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이 추가되며, 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우리 지역의 숨은 보석 같은 음식점과 업체들이 적극 참여해 순창의 맛과 멋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공무원 정책 발굴 활발 ‘챌린지 100℃’

정책연구 성과공유회서 5개 우수 아이디어 제시

완주군은 지난 22일 정책연구모임 ‘완주 챌린지 100℃’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문화·관광·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완주 챌린지 100℃’는 군정의 창의적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올해는 6급 이하 공무원 29명이 참여했다.

총 5개 정책 아이디어가 발표됐으며, 완주군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심사와 직원

투표를 통해 수상 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국가사적 웅치전적지를 활용한 힐링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한 ‘웅치이치? 운치있지!’ 팀에게 돌아갔다. 이 팀은 ‘의병의 숲, 웅치를 찾다’를 주제로, 웅치의 역사적 가치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캐릭터 개발 및 굿즈 제작 등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우수상, 장려상에는 완주에서 완벽한 한 주 보내기, 만경강 라이프파크, 완주 청년 만남 주선, 청년 운전연수 프로그램 및 100원 택시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시민 응급처치 역량 강화

남원시보건소가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2일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와 협력해 올해 계획된 총 4차례 정기교육 중 첫 번째로 진행됐다.

남원시보건소는 관내 기관·학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상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쉽게 응급처치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보건기관 종사자,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책임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전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가이드라인 소개 ▲심정지 발생 시 대처법 ▲교육용 모형과 심장충격기를 활용한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남원시보건소는 총 4회의 정기교육 외에도,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위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마을만들기 사업 ‘첫걸음’ 신규 대상지구 주민포럼

남원시는 2026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 발걸음으로 신규 대상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포럼을 진행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민포럼은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마을그리기 주민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남원시농촌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하며, 대상지는 2024년 생생마을만들기 등 기초단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주생면 부동마을과 동산마을, 대강면 월산마을, 아영면 외지마을로, 총 4곳이다.

주민포럼은 지난 22일 주생면 부동마을을 첫 시작으로, 앞으로 각 마을당 총 5회에 걸쳐 주민교육, 주민포럼, 현장학습,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민교육은 사업 주관 부서인 지역활력과의 마을만들기 사업 정책 설명과 주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관내·외 마을만들기 선도마을 이장님의 사례 발표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2026년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는 주민포럼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예정이다. 지구당 총 6억원을 투입, 각 마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을공동체 공간을 조성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하반기 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 개최

순창군이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강화와 행정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하반기 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을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인턴에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등 총 25명이 선발됐으며, 군은 지난해부터 참여 대상을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고, 썬치면·북흥면 등 원거리 지역 학생에게도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혀왔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인턴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과 호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창군 주요 정책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행정인턴의 역할과 근무 수칙, 민원 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으며, 인턴들은 향후 군정 업무 지원을 포함해 민원 응대, 지역 행사 보조, 주민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이번 경험이 단순한 업무 수행을 넘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세진공업, 완주 희망나눔가게에 200만 원 상당 물품 전달

완주군 봉동읍 산업단지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세진공업(대표 서강일)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되는 봉동 희망나눔가게에 20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 라면, 세제 등의 물품을 기부하며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서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밀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희망나눔가게 물품 기부를 시작했다”며 “늘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 항상 살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전주자원봉사센터, 나눔 실천한 으뜸자원봉사자 시상

조태형 씨이희옥 씨 등 5명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는 23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일반인 4명과 청소년 1명 등 총 5명의 자원봉사자와 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일반인 부문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과 서가 정리를 맡아온 이희옥 씨(58세, 여) △평생학습관 행사 지원을 비롯해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에 참여한 유성호 씨(52세, 남) △노인들을 위

해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한 이수영 씨(55세, 여)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며 봉사활동을 실시해온 김유범 군(18세, 남)이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정성평가 일반인 부문에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야간순찰 및 자율방범 봉사활동에 임해온 80대 봉사자인 조태형 씨(87세, 남)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정성평가 단체부문에서는 전주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로 구성된 전북필리핀인협의회 전북까바안

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정소민 기자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온 전주시민 5명과 1개 단체가 전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진=전주시자원봉사센터>



남원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제1회 가야별빛 아영제' 성료

남원시 아영면은 지난 20일 아영면 행복나눔센터에서 ‘제1회 가야별빛 축제’가 주민과 방문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축제는 아영면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가 주최·주관했다. 축제를 주관한 이경연 운영위원장은 “이번축제를 통해 주민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등 힐링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 지역 기관장 모임 새만금회, 9585부대 장병 위문 방문

장병 노고 격려 위문금 전달

군산시 소재 각급 기관장들로 구성된 새만금회(회장 군산시장 강임준)가 지난 22일 군산에 주둔한 9585부대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문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대를 방문한 새만금회 기관장 17명은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위문금 300만 원을 전달했

다. 이어 부대 시설을 시찰하고, 부대 내 장병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강 시장은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들의 헌신이 군산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서해로·새고창로타리클럽,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부안군은 지난 21일 부안서해로타리클럽(회장 신철용)과 새고창로타리클럽(회장 나재남)이 고향사랑기부금 각각 300만원을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

두 로타리클럽은 2023년에 이어 올해 2025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실천하며 지역 간 우의를 다지고 상생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있다. 기부는 부안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진행됐으며 상호 기부 취지에 공감한 양측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았다.

/부안=신상수 기자



강성백·강희주 부녀, 진안군에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은 23일 강성백·강희주 씨 부녀가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장승조등학교 졸업생인 강희주 씨의 남다른 고향 사랑과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됐다. 강희주 씨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등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여주며 진안군의 자

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강성백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딸과 함께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진안의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에 쿨키트 70상자 전달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을 위한 ‘쿨(COOL)키트’ 70상자(350만 원 상당)를 23일 군산시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JB전북은행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2025 시원한 쿨키트 나눔사업’으로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기탁된 쿨키트는 여름이불, 선풍기, 쿨타올, 쿨도시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이웃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 나눔과 사회공헌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취약계층에 '1:1 매칭나눔 챌린지' 보양식 전달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정관일)이 여름철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1:1 매칭나눔 챌린지’를 통해 42가정에 보양식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 공동체의 온정을 전했다.

이번 나눔은 기부자 1명이 1만원을 기부하면 복지관이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두 배의 정성으로 저소득 어르신과 아동 가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활동은 소외계층의 체력 보충은 물론, 지역사회 내 따뜻한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정읍=김정인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무주장학재단에 '상상카페' 수익금 2백만원 기탁

무주군가족센터가 지난 23일 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정성철 무주군가족센터장은 “이번 장학금은 무주상상반디숲 내 상상카페 운영 수익금으로 무주지역 아이들의 학업을 뒷받침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라며 “무주군가족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에어컨 실외기 화재 이렇게 예방하세요!



단일 전선을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



실외기 주변 발화 위험물질 제거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이상 유무 점검 후 가동



실외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 의뢰

〈一事一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내란 완전 종식 없다(2)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현재 북과 러시아의 동맹이 최상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라브로프의 발언은 북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북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한국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정부가 북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한국이 북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근거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목했던 국가보안법을 선제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출발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과 북의 적대관계에 기초하는 국가보안법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대매국적, 반국민적 파쇼세력인 극우 내란세력은 그야말로 전멸할 것이고 보수 성향 국민들은 극우 내란세력에 대한 공포 - 군대로 대표되는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 - 에서 해방되어 민주진보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극우 내란세력이 군대를 동원하는 내란을 통해 국민들을 유혈진압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

국가보안법은 반평화(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동시에 한국인들한테 정신병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정신병적 악법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인 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상을 금지하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 파쇼악법이

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타인들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다음과 같은 심리와 통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도 엄연한 사람이다. 그도 나와 똑같은 존엄한 인간이고, 한국 국민이므로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 즉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애, 형제애에 기초해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타시하지 않고 공존하려는 것은 정상인의 심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타인들과의 공존을 거부하거나 나아가 그들을 척결하려는 심리와 통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나와는 전혀 다른 반국가세력일 뿐이고, 한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그들과는 한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다. 반드시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추방하거나 척결하는 끔찍한 세상을 꿈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와 다르거나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타시하면서 제거하려 하는 것은 악성 정신병자의 심리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일거에 수거해 척결하려 한다면, 그는 극악한 정신병자 아닌가.

참고삼아 말하자면, 정신병에는 이웃과 사회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 정신병도 있지만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정신병도 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대중적 정신장애는 이웃과 사회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정신병 혹은 정신장애에 일 반을 악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에 가혹증 같은 정신장애는 반드시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 이런 반사회적 정신병 -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정신병을 악성 정신병으로 불렀다 - 은 반드시 악과 결부되므로 지탄과 배격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에게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공존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금지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어 적대시하고 배타시해도 괜찮으며 여건만 되면 척결하고 부추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에게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정신병적 악법이다. 한국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극단주의, 혐오주의 등의 뿌리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정식 UN 회원국이자 현실적 국가인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북 적대적, 비현실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의

적대관계를 고착,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핵심 사상의 자유 - 한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로 표현되고 있다 - 를 부정하는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극우 내란세력이 색깔공격과 국가폭력(내란)으로 한국을 장기간에 걸쳐 지배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에게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든든한 뒷배다.

인간에, 인류애에 기초하는 연대와 공존의 삶을 금지하고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정신병적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인의 정신은 건강해질 수 없으며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0일에 시작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8월 9일 까지 진행된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링크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민선 8기 전북도정, 실패의 그림자 지울 때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이 출범 3년을 맞았지만, 도민들이 기대했던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변화와 체감 효과도 미미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내부 구성원들의 비위와 잇따른 인사 논란, 전주·완주 통합 이슈에 행정력이 쏠려 들어가면서 도정이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터져 나온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직후 “전북 100년 대계의 초석을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음에도 도민들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체감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특례조항이 빠져 사실상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전북도가 체결한 212개의 투자협약 중 현재 가동 중이거나 실제 투자가 완료된 기업은 39곳에 불과하고, 투자 포기 사례도 19곳이나 된다. 이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부재와 함께 도정의 전략적 실행력 부족의 결과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파행 운영으로 인한 국제적 망신 역시 여전히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시 실패로 인한 후유증은 전북의 대외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비밀주의 논란, 본선 유치 대책 미흡 문제 등은 도의회에서 수차례 질타를 받았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도정의 에너지를 뺏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로 논의는 답

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정작 행정력은 이 사안에 매달리며 도민 삶을 개선할 정책 동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전북도정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치중해 있다는 우려다.

내부 인사시스템의 허술함도 문제다. 김 지사 취임 초반부터 정무라인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이어졌고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고위 간부를 주요 보직에 앉히는 등 원칙 없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익산 부단체장 시절 택시기사와의 마찰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 요직에 발탁되는 사례도 실망감을 안겼다.

전북도는 최근 각종 특강 등을 열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다.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여주기가식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지역 관광 활성화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역량이 절실하다.

민선 8기 임기는 아직 1년여가 남았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도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 전북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인사 원칙을 바로 세워 공직 사회에 신뢰와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처럼 구호만 요란하고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전북도정은 더욱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전북의 내일을 책임질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화재열전



송광사 명부전 소조지장보살삼존상 및 권속상 일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물, 불교조각, 보살상
-지정일·1999년 4월 23일
-시대·조선시대
-소재지·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오늘의시

그곳이 멀지 않다 / 나 희덕

사람 밖에서 살던 사람도
숨을 거둘 때는
비로소 사람 속으로 돌아온다

새도 죽을 때는
새 속으로 가서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연무대 출생.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

빼를 높히리라
새들의 지저귀음을 따라
아무리 마음을 뺏어보아도
마지막 날개를
접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

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등이 있고 시론집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

어느 겨울 아침
상처도 없이 숲길에 떨어진
새 한 마리

넓은 후박나무 앞으로
나는 그 작은 성지를 덮어 주었다

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발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 °C



에어컨 작동 중일때에는 출입문과 창문은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없는 손길, 우리 모두를 위한 「김제시 행복 동행」

김제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노인일자리 사업 '새참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김제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35.5%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발맞추기 위해 시장 직속 김제시 어르신성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김제형 복지 시책을 발굴 추진 중이다.

시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도시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8대 영역 42개 실행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제감도를 높이고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 김제시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의견 수렴 활동과 고령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과 홍보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앞으로 2026년까지 3개년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100세 도시 김제를 넘어 누구나 살기 좋은 김제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 '새참국시' 오픈

우리밀 국수와 건강한 육수 활용한 따뜻한 한 끼

시는 지난 5월 12일, 우리밀 국수와 건강한 육수를 활용한 웰빙 먹거리 '새참국시' 사업장을 오픈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과의 상생, 나이가 지역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동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의 일환으로, 「2024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 연구모임」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김제지평선시니어클럽에 위탁했다.

'새참국시'는 김제 전통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봉남면에 위치한 ㈜우리농촌살리기공동체 네트워크(대표 심상준)에서 생산하는 우리밀 국수와, 조미료를 넣지 않은 건강한 육수를 사용한다. 65세 이상 고객과 장날 전통시장 이용 고객은 1,000원, 일반고객은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으로 김제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시가 하반기부터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거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일상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내 보건·복지 자원을 통합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가운데, 김제시는 군산·남원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75세 이상 장

운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정서·안전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현재 3개의 수행기관을 통해 취약 어르신 3,034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홀로 거주하거나 위험에 취약한 어르신 가정에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관내 독거노인 및 중



요양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등급판정 대기자, 병원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중점돌봄군 등이다.

-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약지도 상담사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지원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약지도 및 상담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장과 자립적 건강관리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시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실현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

증장애인 3,266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어르신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확산 및 지역사회 효문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 위하여 어르신을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3세대 이상 가정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행복카드 지원

시는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6만 원을 지급하는 「어르신 건강행복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욕탕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지원방식에서 이·미용실과 안경점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 개개

인의 복지 욕구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어르신들이 바우처카드를 통해 자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어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장애인직업재활훈련센터는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 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고용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입가공업 훈련과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김제시장장애인보호작업장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생산 중인 물티슈 외에도 다목적 세정제를 추가로

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 장애인으로, 혈액·복막 투석비와 혈관 수술비 등 본인부담료비를 최대 월 150천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월평균 45여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지속적인 투석과 수술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장애인일자리 확대로 자립지원 강화

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공공영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시는 국비·지방비 포함 총 약 19억 원을 투입해 일반형, 복지일자리 등 4개 유형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이며 2022년 7명에서 2025년 현재 22명까지 확대됐다. 2026년 까지 총 25명 고용을 목표로, 다양한 장애유형과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고용 기회를 제공, 단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추진중이며, 지역 내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장애인의 사회활동 확대 및 돌봄 지원 강화

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종중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이 있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교육으로 학대없는 김제시 만들기에 앞장서

시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100개소의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학대의 심각성 인식 제고와 함께 어르신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노인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노인복지시설 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시가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관한 '창립 70주년 2024년 제3회 노인복지시설 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올해 전국 243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중 단 5곳만이 선정됐으며, 김제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 "어르신들의 두 번째 집, 더 편안하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약 400개소의 경로당의 시설 및 거주 환경이 개선되며, 총 사업비 12억6천6백만원이 투입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도민을 웃음짓게, 전북을 아름답게

Make Jeonbuk beautiful, make citizens smile.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2-9603